

# 전주매일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현대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음 1월 28일) 제175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관광, 도약대에 오른다

### 28일 서울서 '2017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

### 14개 시군 등과 함께 현장서 상품 홍보·판매도

전북도가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체험 1번지,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 유치를 위해 오는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주요기관장,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언론사,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 외국인 문화 서포터즈단, SNS관광 기자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식전 행사에 앞서 송하진 지사는 여행사 대표와 관광전문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수려한 자연경관, 유구한 문화유산, 풍부한 스타일로 한국적인 매력이 가득한 한국체험1번지 전라북도와 전북투어패스,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광상품 등을 설명하고 전북으로의 여행을 초대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의 콘셉트는 '大韓民國 관광 1번지, 門을 열다, 즉, 大門을 활짝 연다는 의미로,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 한분 한분을 정성껏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주요 내용은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

축하영상 상영, 전북대표상품 프리젠테이션, 홍보대사 위촉, 한국관광공사·한국방문위원회와 업무협약식, 전담여행사 지정, 관광객의 다짐 및 전북방문의 해 선포 세레모니,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국내외 여행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가할 것으로 보아, 전북도는 14개 시군 및 관광업계 등과 함께 트래블 마트도 개최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상품 홍보·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는 사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구한 문화유적 그리고 무엇보다 한옥, 한지, 한식, 태권도 등 한스타일 관광자원 등 한문화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고장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익산백 권도선수권대회, 관광상품 등을 설명하고 전북으로의 여행을 초대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월에는 전주에서 FIFA U-20 월드컵대회, 6월에는 무주에서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또 내적으로는 전북 14개 시군을 단일 관광권으로 묶어주는 토탈관광시스템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전북투어패스 카드 한 장으로 60여 개 주요관광지 무료 입장, 맛집·숙박·체험시설 최대 50% 할인혜택, 14개 시군내 버스 무료 이용 등 전북도민의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마련해 선보인다.

올해 전북도에서는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무르익은 여건을 바탕으로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 다양한 손님맞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이벤트 및 특별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큼 국내외 여행객들이 전북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지역 관광시장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17 전북방문의 해는 비록 단년도 행사이지만, 이를 계기로 전북의 여행업, 유관기관, 도와 시군이 모두 하나로 뭉쳐, 전북관광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전북현대 K리그 시즌권 구입

23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일재 행정부지사, 진흥 정무부지사, 최빈식 전북도노조위원장이 김종탁 전북현대모터스 부단장에게 전북현대 FC의 K리그 우승 기원 및 흥경기 홍보를 위해 시즌권(113장)을 구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빈식 전북도청노조위원장, 김일재 행정부지사, 김종탁 현대모터스 부단장, 송하진 도지사, 진흥 정무부지사, 김인태 문화관광국장. <관련기사 13면>

##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진상규명 특위 본격 가동

### ▶ 도의회, 2차 회의 개최

### 양용모 "개발청-삼성 간 입장차로 협조 전혀 안돼"

### 국주영은 "대체사업 등 구체적 대안 가지고 접촉해야"

### 정호영 "선거 때만 이용하는 정부 조삼모사 정책이 문제"

### 박재만 "소통창구가 없으면 하루 빨리 창구 만들어야"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양용모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및 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 단장으로부터 삼성 새만금 투자 및 새만금 MOU 현황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양용모 위원장은 삼성 새만금 투자 MOU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은 MOU가 파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

고 '전북도는 MOU가 사실상 파기됐다'고 보는 실정으로 양쪽기관에서 정방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도에 대책회의를 통해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및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해숙 위원은 삼성은 MOU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무책임하게 파기해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모욕한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전북도에서 삼성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삼성에 제안해야 삼성에서도 전북도와 접촉하는데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도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위원은 "MOU가 법적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LH 유치실패로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삼성과의 MOU 체결은 도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갖게 한 것으로 삼성에서 MOU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삼성이 새만금 투자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대체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삼성과 접촉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영 위원은 "삼성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실제적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빨리 되어 이익이 된다면 투자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만금은 선거 때는 이용하고 선거가 끝나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부의 조삼모사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계획대비 예산투자, 새만금 내부개발 등 그간의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여 전북도에서 역량을 모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재만 위원은 "삼성과 소통창구가 있는지 묻고 소통창구가 없다면 하루 빨리 소통창구를 만들어 삼성이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업무보고에 이어 우선 삼성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향후 자료검토·분석을 통해 현 상황 및 향후 특위 활동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3월부터 삼성 방문, 새만금개발청과 간담회, 증인 채택 및 청문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군산~석도 한·중 카페리 항차 주 3→6회 증편 긍정 검토

### 도, 8월 한중해운회담서

군산~석도간 한중 카페리 항차 증편이 오는 8월 예정인 한중해운회담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해수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해양수산부-시도 해양수산정책협의회'에서 '군산~중국 석도간 카페리' 항차 증편을 건의했고, 해수부로부터 올 한중해운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급증하는 군산~석도간 한중카페리 여객 및 화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한중카페리의 수도권 편중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군산~석도간 한중카페리의 주 6회로 항차 증편이 한중

해운회담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군산~중국 석도간 카페리'는 2008년 4월 취항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6년도 여객 16만9,788명과 화물 3만6,255TEU로서 전년 대비 여객은 28%, 화물은 21%가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군산~중국 석도간 카페리'의 주 3회 운항만으로는 증가하는 화물 수요에 대응할 수가 없어 화물이 타 항만 이탈됨에 따라 항차 증편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 각계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제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이 의제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지역정 치권, 군산시 등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설득 노력했다.

또한 지난해 8월 한중해운회담 시 양국 정부는 '군산~석도간 항로 추가 투입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투입 시기 등은 차기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올 8월경 '제25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주 6회로 항차 증편이 확정될 경우 증가 추세에 있는 대중국 화물수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돼 물동량 증대를 통해 군산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군산~중국 석도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이 급증할 수 있도록 군산시, 지역정치권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국립세종로시립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문화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